

전통 한지를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 상품 개발 II*

- 관련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Accessory Product made with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II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related references -

심준영 · 김용숙**

전북대학교 의류학전공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Shim, Joon-Young · Kim, Yong-Sook

Majoring in Clothing & Textil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made from the bark of the paper mulberry tree is a good handicraft material because of its high viscosity, durability, dyeability, toughness, flexibility, plasticity, and manipulability. Hanji has been used as a textile material such as cotton wool for protection and keeping us warm from cold weather. However, Hanji has many limitations, while other textile materials have many advantages of such as washability, being sunproof, and fast colo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hysical properties, formation ability, and dyeability of Hanji as a material of fashion accesso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5 parts : 1. To introduce the necessities of this study, 2. To review a historical background of Hanji and to identify its physical characteristics as a fashion accessory material, 3. To review and to compare techniques such as bonding, quilting, knitting, creasing and holding, twisting, folding & braiding, paper pasting, coloring & cutting, and outwashing(?) in making Hanji fashion accessories, 4. To review dyeing and finishing techniques to increase commercial value, 5. To identify the best fashion accessory materials made of Hanji.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anji as a fashion accessory material are its toughness in a wet state, fast color fixing, and flexibility. Especially weaving and knitting are considered as the most desirable techniques to make fashion accessory products stronger and more practical.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Fashion Accessory Product , Fashion Accessory Materials

I. 서론

한국의 전통 한지는 닥나무에서 얻어지는데 그 품질이 우수하고 질감이 좋아 종이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명성이 높았다(程榮, 이승철에서 재인용, 2002). 그 이유는 토양과 기후가 온난하고 배수가 잘되는 경사면이 많아 닥나무 재배에 적합하며, 닥나무의 섬유장이 길고 제조과정에서 절단하지 않고 방망이로 두들겨 곱게 펼쳐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강인하고 질긴 성질을 갖게 된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전통 한지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패

션 상품의 재료로 사용해 왔다. 이는 전통 한지가 강인하고 염색이 가능하며 조형성과 보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장기적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또 전통 한지는 은근한 동양적 전통미와 품격, 흡습성과 빛 투과성, 제습성, 소취성 등을 지녔기 때문에 조명기기를 비롯한 실내 장식과 의료용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이승철, 2002).

전통 한지는 공예가의 손에서 심미적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션 상품의 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실용적인 상품의 소재로 실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그 용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전통 한지를 소재로 의상(이수정, 2003), 수의

* 이 논문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04-2004-000-10113-0)

** Corresponding author: Yong-Sook Kim
Tel: 063) 270-3847, Fax: 063) 270-3799
E-mail: kys3847@chonbuk.ac.kr

(이수정 외, 2004), 넥타이, 지갑 등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마모성, 색상견뢰도, 내구력 등이 부족하여 소재의 성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임영주, 상기호, 2002; 신순단, 박옥미, 2004).

한편 서양에서도 1960년대에 종이로 만든 패션 상품이 등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일회용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과 삼림자원 파괴의 심각성 때문에 일회용 패션 상품 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벤트용, 여행용, 위생용 패션 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인을 위한 패션 상품으로 활용되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www.mphdesign.net). 서양의 종이에 비하여 전통 한지는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패션 상품화했을 때 수요가 더 크고 용도도 다양할 것이다.

전통 한지를 패션 상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장강도와 방수성을 증강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닥나무에서 직접 실을 뽑아 니트 원단을 생산하거나(김태년, 전양배, 2003a) 면사 굵기의 기계 한지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이성각, 2004; www.syglobal.com)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전통 한지를 이용한 패션 상품 소재로 전통 한지에 무늬를 그린 후 일정 간격으로 자른 후 제직하는 절지포(切紙布)가 개발되었다(김태년, 전양배, 2003b).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내구력이나 마모성이 부족하여 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패션 액세서리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먼저 전통 한지의 역사와 용도, 조형성, 염색 및 가공 특성에 대하여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들 기법을 활용하여 패션 액세서리 상품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전통 한지의 역사와 용도

종이란 '식물성 섬유를 재료로 만든 얇은 것' 또는 '섬유 물질을 개개의 섬유로 분리시킨 다음, 그것을 물 속에 담고 다시 모아 습지로 만든 후에 건조시켜 만드는 섬유 물질의 얇은 층'이라 정의된다(Adanur, 1997). 종이는 이미 BC 4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어원은 파피루스(papyrus)에 두고 있으나 파피루스의 실제 제작과정은 종지와 서로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파피루스를 종지의 기원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지의 기원은 105년경에 후한의 화제때 채륜이 나무껍질, 마, 창포, 어망 등 식물 섬유를 원료로 돌절구에 쪼아서 만든 것으로 중국 후한서 제

108권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종이로 전래된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610년경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 종이 만드는 법을 지도했다는 일본 書記의 기록으로 미루어 그보다 훨씬 전이었을 것이다. 文房肆攷를 보면 이상과 같이 중국을 통하여 들어 온 종이 삼국시대부터 색상이나 질감이 우수하다고 평평을 받아 중국으로 역수출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이 닥나무 재배에 적합하고 다듬는 기술도 자체 개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이승철, 2002).

전통 한지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한지는 PH가 7.5-9.0인 중성지로 산성지인 서양의 종이에 비하여 보존성이 높아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하여 '견오백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 하였다(秉鈞, 이승철에서 재인용, 2002). 둘째, 질감이 부드럽고 빛깔이 곱고 은은하다. 셋째, 가볍고 통기성, 유연성, 방음성, 단열성, 온도 및 습도 조절능력, 자외선 차단성 등 우수한 성능을 많이 갖고 있다(이승철, 2002).

전통 한지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기록 보존을 위한 서적 용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창호지나 도배지와 같은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창호지에는 탁섬유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작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흡수성, 통기성, 햇빛투과성, 흡음성 등이 우수하여 환기와 온습도 조절까지도 가능하다. 온돌바닥에 장판지로 깔면 바닥의 습기를 배출해 주고 열을 확산시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준다. 셋째,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책장을 좁게 잘라 꼬아서 종이끈을 만들어 지승공예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넷째, 의료용 의복이나 보온용 소재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의류재료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한지를 주물러 솜대신 옷 속에 넣어 보온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다섯째, 강도가 강해 지폐나 여과지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기타 종이나 벌레가 옷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옷을 싸 두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흡음성이 높고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스피커의 음향판이나 개스킷 등 첨단 소재로 사용되며, 인공피부용지와 같은 의료용 소재로도 사용되어(이승철, 2002; 조현진, 2002) 그 용도가 매우 넓다.

III. 전통 한지의 조형성

전통 한지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천연염료로 염색하여 형태를 변화시켜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전통 한지는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쉽고, 실이나 노끈과 같은 다른 소재와 섞거나 겹쳐 넣기 쉬우

며,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 한지는 섬유소 섬유가 주성분으로 직접 염료로 염색이 잘 되나 견뢰도가 낮다(민춘기,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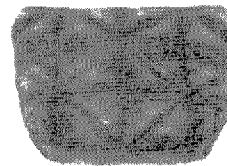
전통 한지는 강도가 강하고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면 또는 입체조형으로 제작과정이나 후처리과정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전통 한지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부리기(Bending) 말기(Curling) 접기(Folding) 새김질하기(Scoring) 자르기(Cutting) 엮기(Interlacing) 다면체 구성하기 등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멍내기(Punching) 넓히기(Expanding) 잇기(Join) 짓구김(Crush-up) 찢기(Break-up) 겹치기(Laminating) 붙이기(Glueing) 잡아뜯기(Pluminating) 등을 적용할 수 있다(김정신, 1997; 이주실, 김정혜, 1999; 임영주, 상기호, 2002).

실용적인 패션 액세서리 상품용 소재 개발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법에는 첫째, 전통 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통 한지 위 또는 밑에 다른 소재를 놓고 접착시키거나 누비는 오색전지공예법(Coloring & Cutting), 접착법(Bonding), 누비기 법(Quilting)이 있다. 오색전지공예법은 곱게 염색한 전통 한지에 길상을 의미하는 각종 무늬를 오려 생활용품을 장식한다. 이 방법에는 기장기법과 목골장기법이 있는데 기장기법은 속 골격에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여 만든 후지를 재단하여 쓰는 것으로 대개 하중을 적게 받는 쌈지, 함, 반진고리, 빗집 등을 만들 때 이용된다. 목골장기법은 오동나무나 등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이 겹과 안을 전통 한지로 겹겹이 발라 색지로 치장하며, 장롱과 같이 부피가 큰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금광복, 2002). 접착법은 거즈나 부직포 심을 접착심으로 사용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면 전통 한지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거나 두꺼운 전통 한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1)은 접착법을 적용하여 만든 귀주머니이며 앞에 오색전지공예법으로 무늬를 오려 붙였다. 누비기 법은 전통 한지 밑에 솜을 한 겹 두고 누비며, 소재의 표면에 입체감을 주거나 보온용 소재 개발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겹쳐 놓고 누빈 다음 누빈 바느질 선 사이의 공간에 칼집을 내어 꽃모양을 입체적 질감을 줄 수도 있다. (그림 2)는 염색된 전통 한지 밑에 솜을 한 겹 놓고 누비 만든 동전 주머니이다.

둘째, 전통 한지를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통 한지를 4mm 폭으로 자른 후 꼬아 만든 한지사(韓紙絲)로 엮는 지승공예법(Twisting), 레이스를 뜨는 편직법(Knitting), 제작하는 제직법(Weaving), 가늘게 자른 전통 한지를 접은 후 엮는 접어엮기법(Folding & Braiding)이 있다. 지승공예법은 한지사로 바구니를 엮듯 엮으므로 통기성이 있고 깔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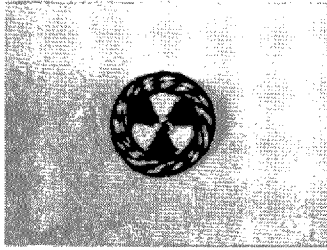
[그림 1] 귀주머니 (심준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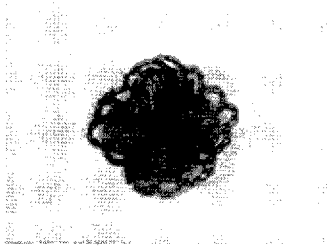
[그림 2] 동전주머니 (심준영 제작)

한 촉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름용 소재로 적합하다. 특히 흰 책장을 사용하면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고 책장에 쓰인 글씨가 자연스러운 무늬를 이루어 전통미를 가중시켜 준다. 이 위에 옷칠을 하여 내구성을 보강할 수 있다. (그림 3)은 지승공예법으로 엮어 만든 단추이다. 편직법은 한지사를 코바늘이나 대바늘을 사용하여 뜨는 방법이다. (그림 4)는 한지사를 코바늘로 뜨서 만든 모티프이다. 제직법은 한지사를 수직기에 걸어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만든 원단을 지사포(紙絲布)라 하며 강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사에는 마사나 나일론사가 사용되기도 하며, 강도가 강하고 실용적이다. 김태년과 전양배(2003b)는 전통 한지 전지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디지털 프린팅한 후 4mm 폭으로 자른 한지사를 꼬지 않고 제직시 바디로 쳐 축소시켜 만든 절지포(切紙布) 제작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때 바디침에 의하여 한지사 폭이 약 1/4로 축소되므로 그림을 길이 방향으로 4배 정도 확대하여 전통 한지에 그려 넣어야 절지포에 그림이 1/4로 축소되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림 5). 접어 엮기법은 전통 한지를 1.2cm 폭으로 자른 후 3번 접어서 4mm 폭의 한지사를 만든 후 엮는다. (그림 6)는 시판 금속틀에 접어 엮기법을 적용하여 만든 귀고리이다.

셋째, 전통 한지를 물에 불려 만드는 방법으로 줌치기법(Creasing & Holding), 지호공예법(Paper Paste), 위시아웃기법(Washouting) 등이 있다. 줌치기 법은 전통 한지를 물에 담가 불린 후 이것을 2-3 장 배접하므로 강인하고 두터운 소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최경은 등(2004)이 줌치기 법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교수-학습용 교구를 제작하였다. (그림 7)는 시판 패션 액세



[그림 3] 단추 (심준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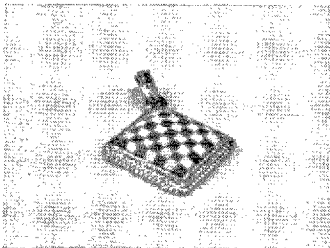


[그림 4] 모티프 (심준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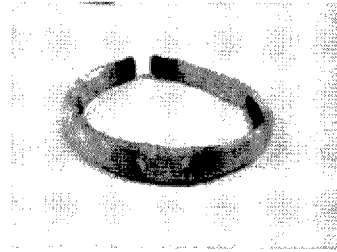
(그림 5) 절지포 의류

(출처: 김태년, 전양배(2003b). www.kipris.or.kr)



[그림 6] 귀고리 1 (심준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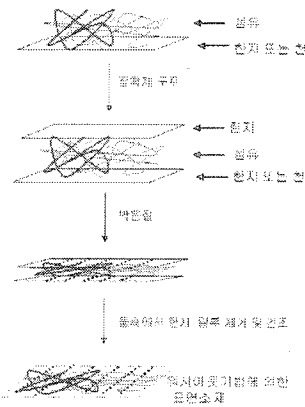
서리용 금속 틀 위에 증치기법을 적용하여 만든 헤어 밴드이다. 지호공예법은 종이를 물에 담가 불린 후 밀가루 풀을 섞어 곱게 짚은 후 생활용품을 만들며 건조된 후



[그림 7] 헤어밴드 (심준영 제작)



[그림 8] 귀고리 2 (심준영 제작)



[그림 9] 위시아웃기법 (장남용(2001), www.kipris.or.kr)

들기름이나 콩기름을 발라 내구력을 보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 사용된 전통 한지를 갈 때 나오는 폐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릇이 귀하던 시절 농가에서 함지박, 과반, 씨앗통, 탈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림 8)는 시판 패션 액세서리용 금속 틀 위에 지호공예법을 적용하여 만든 패션 액세서리이다. 위시아웃기법은 전통 한지 또는 천 위에 섬유소를 배열한 후 한지를 위에 올려 놓고 박음질 한 후 물 속에서 맨 위의 한지를 부분적으로 떼어내 무늬를 만들어 건조시킨다. 이렇게 하면 섬유소의 아름다운 재질감과 색상의 무늬를 전통 한지에 반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www.kipris.or.kr). (그림 9)는 위시아웃기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통 한지의 소재화 기법과 특성

기법		만드는 법	장단점
전통 한지를 그대로 사용	1. 오색전지 공예법	염색된 전통 한지를 가위로 오려 무늬를 만든 후 생활용품 위에 풀로 붙인다	기법이 간단
	2. 접착법	전통 한지 뒤에 접착심을 다리미로 접착시킨다	강도 증가 유연성 저하
	3. 누비기 법	전통 한지 뒤에 솜을 놓고 누빈다	입체감 증가 보온성 증가
전통 한지를 잘라서 사용	4. 지승공예법	꼬아 만든 한지사를 엮는다	강도와 유연성 증가
	5. 편직법	꼬아 만든 한지사를 대바늘이나 코바늘로 뜬다	강도와 유연성 증가
	6. 재직법	꼬아 만든 한지사를 수직기로 재직(지사포) 가늘게 자른 한지사를 그대로 수직기에 넣어 재직(절지포)	강도와 유연성 증가
전통 한지를 물에 적셔서 사용	7. 접어엮기	한지사를 가늘게 접은 후 직각으로 겹쳐 놓고 상하로 엮는다	유연성 증가
	8. 줌치기법	전통한지를 물에 불린 후 2-3 장 겹쳐놓고 말린다	부피감 증가
	9. 지호공예법	전통 한지를 물에 불려 죽으로 만든 후 공예품을 만든다	폐지 재활용 투박함
	10. 워시아웃법	전통 한지 위에 섬유로 무늬를 만들고 위에 한지를 올려 놓고 박음질한 후 물 속에서 맨 위에 있는 한지를 부분적으로 떼어 무늬를 만들어 건조시킨다	재질감과 색상이 아름답다

IV. 전통 한지의 염색 및 가공

옛날부터 전통 한지에 장식, 보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였다. 그러나 천보다 물에 약하고 고르게 흡수되지 않아서 어렵다. 전통 한지를 염색하는 방법에는 선염법, 후염법, 혼염법 등이 있다. 선염법은 닥죽에 염색한 후에 발로 한지를 뜨며, 동일한 색상의 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염법은 제작된 한지를 염액에 담그거나 붓으로 칠하거나 분무하여 염색하므로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특히 한지를 염액에 담글 때 접하면 얼룩이 생기거나 찢어지기 쉽다. 강도가 약한 한지의 경우 밑에 모기장이나 질긴 종이를 덧대고 편셋으로 양끝을 집어 염액에 넣고 염색하면 찢어지거나 접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염법은 선염법으로 염색한 한지에 후염법으로 다시 염색하는 방법으로 짙은 색상으로 염색할 때 적용된다(안명숙, 2004).

선홍색은 홍랍의 즙을 사용하여 염색하는데 닥 반죽에 즙을 넣고 끓인 다음 발로 뜨며, 청색은 아청색의 청대

(쪽)을 사용한다. 또 심적색은 소방목 즙으로 한지에 직접 염색하며, 녹색은 청대로 먼저 염색 한 후 황백수를 칠해서 원하는 색을 얻는다. 자초 즙을 한지에 칠한 후 소방목 즙을 칠하면 자색을 얻을 수 있고, 황색으로 염색하려면 황백, 괴예, 울금의 물을 사용한다. 염기성 염료인 황벽은 염기성 염료이기 때문에 한지에 염색하기 어렵고, 물이 들더라도 물로 씻으면 곧바로 빠져 버린다. 그러므로 오배자나 도토리, 밤 등과 같이 탄닌계 염료로 염색한 후 황벽 염액에 넣어 염색하면 탄닌이 매염제 역할을 하여 염색이 잘 되며 방충효과가 있어 장기간 보존을 요하는 불경이나 호적부 용지로 사용되었다. 또 한지에 감즙을 바르면 착색 효과와 동시에 보프라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방부 및 방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강해진다(금광복, 2002; 이승철, 200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천연염료 염색방법

색상	염재	염 색 방 법
선홍색	홍랍 즙	닥반죽에 넣고 끓인 후 발로 한지를 뜬다
청색	아청색의 청대(쪽)	한지에 직접 염색한다
심적색	소방목 즙	닥반죽에 넣고 끓인 후 발로 한지를 뜬다
녹색	아청색의 청대(쪽), 황백수	쪽으로 먼저 염색한 후 황백수를 칠한다
자색	자초 즙, 소방목 즙	자초 즙으로 염색한 후 소방목 즙을 칠한다
황색	황백, 괴예, 울금	염액을 얻어 염색한다
감색	감즙	한지에 직접 바른다

전통 한지 또는 전통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에 적용 가능한 각종 가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수가 공으로 비 올 때 입는 옷이나 우산에 기름을 먹여 지유삼(紙油衫)이나 지우산을 만들었으며 방수성과 내구력을 증강시켰다. 둘째, 군사들이 입는 갑옷 즉 지갑(紙甲)은 전통 한지를 여러 겹 겹쳐 접은 후 엮어 짜고 흑칠을 하면 화살촉도 뚫지 못할 만큼 강도가 강해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지에 기름이나 옷칠하여 내구력과 방수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을 지도기법(紙塗技法)이라 하였다. 주로 들기름, 우뭇가사리, 잣기름, 동백기름, 피마자기름, 옷칠 등을 했으나, 때가 타기 쉽고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에는 락카나 니스 칠로 대신하고 있다(금광복, 200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 한지를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전통 한지의 조형성과 염색성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전통 한지를 패션 액세서리용 소재화하는 기법에 역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전통 한지는 강도가 강하고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생활용품이나 의류 소재로 사용해 왔다. 전통 한지를 패션 액세서리 소재로 만드는 기법은 근본적으로 종이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를 보강하고 질감이나 물성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통 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오색전지공예법, 접착법, 누비기 법, 전통 한지를 가늘게 자른 후 꼬거나 접어 사용하는 지승공예법, 편직법, 제직법, 접어엮기 법, 전통 한지를 물에 불려 사용하는 줌치기법, 지호공예법, 워시아웃법 등이 있다.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전통 한지 뒤에 접착심을 부착하는 접착법, 전통 한지 밑에 솜을 한 층 놓고 위에서 누비는 누비기 법, 그리고 전통 한지 위에 무늬를 오려 놓고 접착제로 붙이는 오색전지공예법, 전통 한지를 가늘게 자른 후 꼬아 만든 한지사를 대바늘이나 코바늘로 뜨는 편직법, 제직하는 제직법, 또는 접어 엮는 접어 엮기법 등으로 만든 소재는 유연하고 강인한 패션 액세서리 소재였다. 전통 한지를 여러 겹 겹친 후 물에 적서 치대는 줌치기법이나 종이죽을 만들어 사용하는 지호공예기법을 적용한 소재는 둔탁한 질감을 주기 때문에 시판 패션 액세서리용 금속 틀을 사용하여 질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워시아웃기법을 적용하

면 함께 사용한 소재의 질감이나 특성을 전통 한지에 부여할 수 있었다. 완성된 패션 액세서리 상품에 락카를 뿌리면 방오 및 방수성이 증대된다.

앞으로 한지사를 이용한 제직법과 편직법을 적용하여 실용성과 상품성이 높은 패션 액세서리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패션 액세서리 상품용 소재 제작 기법을 더 개발하고 적용하여 실용적이고 미적 가치가 높은 패션 액세서리 상품을 개발하여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용도를 창출하여 부가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수 및 염색성을 보강시키고 자외선 차단기법을 개발하여 실용화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주제어 : 전통 한지, 패션 액세서리 상품, 패션 액세서리 소재

참 고 문 헌

- 금광복 (2002). 색지공예. 서울: 대원사.
- 김정신 (1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 작업의 조형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1-46.
- 김태년, 전양배 (2003a). 인장강도와 방수성이 개선된 한지의 제조방법. 자료검색일 2005. 7. 20. 자료출처 <http://www.kipris.or.kr>
- 김태년, 전양배 (2003b). 절지포의 문양 표현방법. 자료검색일 2005. 7. 20. 자료출처 <http://www.kipris.or.kr>
- 민춘기 (2001). 기능성 한지 생활용품의 개발.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전북대 산림과학부. 한국펄프 종이학회.
- 신순단, 박옥미 (2004). 한지를 응용한 의상 및 공예품 활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안명숙 (2004). 전통복식공예. 서울: 교학연구사.
- 이성각 (2004). 니트산업연구원 탁나무에서 실뽀아 '웰빙 니트' 만든다. 자료검색일 2005. 7. 20. 자료출처 <http://www.jeonbukilbo.co.kr>
- 이수정 (2003). 한지 의상의 표현기법. 서울: 영인쇄출판.
- 이수정, 윤승락, 조현진, 황은경 (2004). 한지를 이용한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I -한지 수의를 중심으로-. 펄프·종이기술, 36(1), 75-80.
- 이승철 (2002). 우리 한지. 서울: 현암사.
- 이승철 (2004). 자연 염색. 서울: 학고재.
- 이주실, 김정혜 (1999). 종이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44, 181-198.
- 임영주, 상기호 (2002). 종이공예문화. 서울: 대원사.

- 장남용 (2003). 워시아웃기법을 이용한 표면소재 제조방법 및 그의 방법으로 제조된 표면소재. 자료검색일 2005. 7. 22. 자료출처 <http://www.kipris.or.kr>.
- 조현진 (2004). 우리나라 한지산업의 현황. *전주예술*, 3, 42-55.
- 최경은, 이전숙, 김용숙 (2004). 전통 한지를 활용한 초등 학교 바느질 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1), 19-30.
- 한지로 만든 실 세계 2번째로 개발 (2004). 자료검색일 2005. 7. 20. 자료출처 <http://www.syglobal.com>.
- Adanur, S. (1997). *Paper machine clothing*. Lancaster: Technomic Pub. Co.
- History of the Paper Dress*. 자료검색일 2005. 7. 20. 자료출처 <http://www.mphdesign.net>
- 程榮. 三柳軒雜識.
- 日本 書記
- 秉鈞. 圖說.
- 文房肆攷
- (2006. 06. 16 접수; 2006. 08. 25 채택)